

- 기간: 2000년 12월 28일(목)부터 2001년 1월 9일(화)까지

1월 9일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2대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시점부터는 단식농성이 진행되어야 하며, 마지막까지 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였음.

- 동력: 인권활동가들의 상시 단식 인원(10명에서 15명)을 기본 동력으로 하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동조 단식조를 결합시키며, 다른 단체들의 동력도 결합하도록 조직함. 따라서, 대규모 단식조를 기본으로 하고 이 단식조는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치절하고도 결연한 대오를 유지한다.

- 이 단식 대오를 기본하고 하고, 여기에 다양하면서도 위력적인 투쟁을 결합시켜 투쟁을 확산시킨다.

- ① 대표단 등 상층부의 로비 및 점거 투쟁
- ② 인권단체들의 당번제 투쟁, 인권단체 외의 단체가 결합하는 집회투쟁
- ③ 대규모 대중집회(12/30 또는 12/31, 1/6) 등의 조직
- ④ 다른 단체들의 단기간 단식농성, 철야농성을 조직하여 배치한다.

* 12월 31일 '제야의 중' 타종식 때를 활용하여 대중 선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음.

- 장소: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한통노조 투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명동성당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장기간 단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소 확보가 우선임.

- 단식대오는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천막을 처음부터 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노숙에서 그 대로 치절한 투쟁대오를 유지한다.

- 단식대오 외에 대외협력과 조직을 위한 단위를 별도로 운영한다.(단식대오 외의 단체 사무국장 급으로 구성)

- 각 연대기구에는 박래군이 만나 의논하여 26일 회의에 보고한다.

- 최종 행동 결정은 26일 오후 5시에 사랑방에서 전체 인권단체 집행책임자가 모인 가운데 내린다.

4. 연말연시 투쟁을 위한 각 단체 논의 요청 사항

- 상시 단식 및 릴레이 단식조로 결합할 활동가, 지원 투쟁을 전개할 활동가 파악
- 위의 투쟁 방식 외의 효과적인 투쟁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
- 각 단체가 이 단식농성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 국내외 홍보, 선전전, 대외 협력 등 단식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들
- 마지막 투쟁임을 명심하고, 이 투쟁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모으는 일

(끝)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E-mail: <rights@chollian.net>, <humanrights@sarangbang.or.kr>

수 신 : 각 인권단체 단식농성 참가자 및 각 단체 집행책임자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노동인권회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가나다순》)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

발 신 일 : 2000년 12월 27일

제 목 :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계획 공지 및 각 단체 준비 요청

총 매 수 : 5매(표지 포함)

1. 인권단체들의 연합 단식농성 하루 전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명동성당에 들머리 계단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연한 의지로 단식농성을 결의해주신 동지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2.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8일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등 인권 2대 현안을 연내에 해결하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했습니다. 지난 19일 단식 하루만에 안타깝게 단식을 접었던 상황 이후 정치상황은 더욱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주요 개혁입법의 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의 김대중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강한 징조로밖에 읽히지 않으며, 드디어는 김영삼 정권 때처럼 명동성당 앞에 경찰력이 배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우리는 다시 결연한 의지로 단식농성을 전개하려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영 실종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물길을 돌릴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로서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인권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4. 현재의 정치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우리가 단식농성이라도 하지 않는 한 지금의 물길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력과 사회의 보수화로 급격하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01년 1월 9일까지 진행될 임시국회 기간 동안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단식농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될 것이지만, 중단되거나 대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대중 정부를 반인권 정부로 규정하고 다른 사회세력과 함께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단식농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다음의 사항을 각 단체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노조의 농성 이후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과 준비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6. 별도로 확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 각 단체 준비사항

1. **집결일시:** 12월 28일 오전 10시(시간 엄수)

2. **장소:** 명동 향린교회(초기 집결 장소가 명동성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함)

* 명동성당 주변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린교회에 모여서 지침을 하달 받고 개별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3. 각 단체 필수 준비사항

① 상시 단식자 및 릴레이 단식자 명단 확정 통보(27일 오후 6시까지)

* 각 단체는 최소 1명씩은 결합합니다.

② 단식자들의 방한 준비 철저(침낭, 외투 등 따뜻하게, 초기 천막없는 노숙단식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③ 각 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전원 결합

* 이번 단식농성이 인권단체 전체의 의지가 실린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명동성당 진입시 만약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표님들과 각 단체 어른들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입할 수 있어야 함.

④ **분담금:** 각 단체 10만원씩

* 지난 18일 단식농성 돌입시에 유가협과 사랑방만 10만원씩의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민가협 어머니들이 3만원을 후원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단체들은 10만원씩의 분담금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각 단체 자기 단체 명의의 피켓을 준비바람.

4. 단식농성 일정

①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28일(목)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②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

29일(목)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

* 기자회견 후 민주당사 항의방문

③ 연말 투쟁

31일(일) 오후 9시, 명동성당 들머리

* 집회 후 촛불 행진을 하여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보신각으로 이동함.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8시, 국보폐지 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지 집회 및 선전전을 결합함.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느냐 못 치느냐는 우리의 초기 투쟁의 정당성을 얼마나 인정받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초기 농성대오를 형성할 때 단식 참가자만이 아니라 각 단체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합시다.

(별첨)

인권활동가 연말연시 투쟁을 위한 인권단체 집행책임자 점검회의

일시: 2000년 12월 26일(화) 오후 5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안건: 1. 소위원회 제안 사항에 대한 각 단체 논의 보고

2. 각 연대기구와의 공동행동 논의에 대한 보고

3. 인권활동가 연말연시 투쟁 계획 논의와 확정

4. 기타

<논의를 위한 메모>

1. 연말연시 투쟁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2. 일시

- 2000년 12월 28일 오전 11시부터 2001년 1월 9일(화) 오후 1시까지

* 단식농성을 27일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음.

3. 장소

- 1안: 명동성당 들머리

* 노숙투쟁을 전개하면서 여론을 움직여 성당을 압박, 천막을 치는 방향으로 함.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움직이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있음.

* 한국통신 노조 이후 수배자 천막도 철거된 상황이며, 명동성당 신도들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천막, 장기농성은 불허한다는 것이 명동성당측의 입장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할 경우 성당측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칫 성당과 대립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음.

* 만약 생존권 투쟁 중인 국민은행 등 은행 노조원들이 들이닥칠 경우 지난 주의 양상이 재현될 수 있음

- 2안: 조계사

* 장소는 안정적인데 비해서 외부에 알려내는데는 상당한 한계를 지님

- 3안: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낮 시간에는 집회 신고된 시간을 이용하여 노숙단식농성을 진행하고, 밤에는 봉고차 등을 빌려서 철야하는 방안이 제안됨(사랑방)

4. 투쟁의 목표

- 최근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개혁입법의 추진 약속을 받아낸다.

- 우선 타겟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모아질 것이며, 대통령의 결단으로 실종의 위기에 있는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법무부(검찰)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을 공격하여 개혁입법의 추진의 방해세력을 압박한다.

-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대중에 대한 어떤 기대나 지지도 모두 철회할 것이며, 국민과 더불어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

김대중 대통령 결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라!

야당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앞장서라!

법무부(검찰)은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5. 조직

- 상시 단식자; 약 15명 정도가 결합할 수 있을 것임. 단체에서 빨리 확정해줘야 하며, 상시단식자는 끝날 때까지 대오 이탈을 할 수 없다.

- 릴레이 단식자 또는 지지자 조직; 각 단체는 상시 단식자를 제외하고도 릴레이 단식자나 지지자들을 조직하여 단식대오가 초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릴레이 및 지지단식자가 제대로 조직될 경우 농성대오가 25명 이상 유지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도 각 단체는 빨리 확정해 줘야 할 것임.

- 내부 조직; 상황실장/총무/홍보/기록팀 정도로 구성함. 단식자들은 가급적 무거운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함.

- 대외 사업; 남규선 민가협 총무,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은숙 사랑방 사무국장 등으로 책임을 맡아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방문 및 지지집회, 언론 및 국제연대, 상층 교섭 등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

6. 연대투쟁의 조직

- 국보폐지국민연대; 단식농성에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8시 결합하여 집회를 12월 31일까지 집결하여 진행하며, 12월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 집회에 대거 결합하며, 1월 1일 집회를 함. 1월 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질 것임.

- 시민연대에서는 연말 중에는 지지성명 및 지지방문 정도로 결합하고, 연초에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들을 움직이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상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함.

-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공동집행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사 점거투쟁을 준비중임. 단식농성 들어가면 28일 민주당사에 들어가 눌러앉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각 연대기구들과의 점검회의를 26일(화) 오후 9시 느티나무에서 갖기로 함.

* 각 연대기구들은 명확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으며,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을 27일로 앞당길 것을 주문함.

* 민주당내 천장배, 이미경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서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국보폐지법률안, 국가인권위원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말연초에 구성하여 압박하겠다고 함.

7. 준비사항

(1) 인권활동가 조직 : 단식 참가자 조직, 각 단체 대표 조직, 기자회견 섭외

(2) 언론 홍보 조직 : 국내외 언론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 조직

(3) 투쟁전술 : 초기 농성 장소 확보 및 매일의 투쟁 프로그램 배치

(4) 대외협력 :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국제연대

(5) 물품 및 생활용품

- 참가자 개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복장, 침낭 기본

- 천막을 칠 경우 필요 물품

- 선전물(피켓, 유인물 등)

(6) 기타

단식농성투쟁 평가 2차 회의 결과

일시: 2001년 1월 31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카페 테마(회의 장소였던 국제민주연대 사무실이 수도권 동파로 장소 옮김)

참석: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최재훈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문필자 새사회연대
간사/조영민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이나라 동인련 활동가/박진 다산인권센터 간사/
박래군 단식농성단 1대 상황실장

위임: 울산인권운동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유가협/부산인권센터

1. 단식농성 평가 추가

- 지난 1월 17일 1차 평가 회의에서 나온 것 외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음.

단, 새사회연대에서는 1차 평가에 이견을 제시함. 즉, 단식농성투쟁이 유효적절하였던 점은 맞으나, 운동의 기풍을 살린 투쟁이며 정치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점이 운동세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과 운동의 성과로 민중투쟁의 합법칙성을 확인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로 2월투쟁의 흐름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함. 아울러 2월 투쟁이 현안 중심의 투쟁이며, 이는 단식농성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말고, 인권단체들이 겸허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단식농성 과정에서 동인련 임태훈 대표가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동인련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였으며, 박래군 실장이 30일 임태훈 대표를 만나 의사를 확인하였고, 해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해 보고함. 이를 접수하고 이후 문제삼지 않기로 함.

2. 2월 투쟁 계획 논의

- 3대 투쟁 연대체가 2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릴레이단식농성, 가두서명운동, 릴레이 시국선언, 대통령 및 3당 면담 추진, 3.1 집회 등 5대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2월 투쟁을 기획하고 있음을 문건으로 접하고, 이를 논의함.

- 인권단체들은 2월 투쟁에 대한 이미 결의를 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 릴레이 단식농성과 가두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결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함.

- 인권단체 각각은 단체 사정에 맞게 사업에 적극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며, 단, 서명운동은 인권단체 집중 기간(2월 19일부터 21일)을 잡아서 이 시기의 서명운동을 책임지기로 하였음. 서울의 경우 한 곳에 집중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은 집중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 각 단체의 역량에 맞게 2월 투쟁의 실무에도 결합(예-인권운동사랑방; 단식농성 속보)할 수 있으면 적극 결합키로 하였으며, 각 단체 독자적인 사업도 병행(예-다산인권센터; 수원 지역내 단체들과 공동으로 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천주교인권위; 종교인 시국미사 등)할 것을 권유키로 함.

- 현재 3대 개혁입법 중 국가보안법이 추진되기 가장 어려운 상황임을 공유하고,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하였음. 공개질의서의 발송과 취합, 발표까지는 인권단체들이 책임지며, 이후 결과를 갖고 개별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지역의 조직들에게 제안하여 공동행동(예-국회의원 지구당상 항의방문 등)을 하기로 함.

- 질의서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에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과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상관성을 묻는 것을 담고, 2월 3일까지 함께 할 인권단체들을 모으고, 2월 5일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며, 2월 9일 취합을 완료하고, 2월 12일 결과를 발표기로 함. 2월 5일 발송 이후 각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작업등을 통한 독촉 작업을 참여 단체들간에 분담기로 함.

- 이를 위해 별도의 공대위 등의 조직은 만들지 않고, 인권단체 중에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간사단체는 다산인권센터가 맡으며, 담당자는 박진 간사가 책임지기로 함. 질의서와 보도자료 작성과 발송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맡기로 함.

- 2월 투쟁기간 중 인권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들의 정례 회의를 매주 수요일(가안)에 하여 정기적인 투쟁 점검을 하면서 인권단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기로 함. 이에 기초하여 다음 회의는 2월 7일(수) 오후 6시 수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갖기로 함.

- 회의 결과를 3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3대 연대체 공동 집행위원회에 통보기로 함.

3. 재정보고

- 단식농성 기간 중의 재정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현재 통장 잔액이 3,159,740원임 (총수입 7,917,240원-총지출 4,886,200원)

-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현수막 2개 제작한 비용은 지출하기로 하였으며, 남규선 민가협 총무가 지출한 병원비 31,000원을 지출하기로 하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농성속보 발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시 이를 지출하기로 하였음.

- 동인련이 5만원 납부한 것을 분담금 납부로 인정하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단식자 병원비로 5만여원을 지출한 것도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함. 아직 단식농성 미납한 단체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기로 함.

- 재정보고는 이후 정리하여 정식 보고하기로 함.

(끝)

인권 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연락 담당: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741-5363, 016-729-5363)

수신: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에 참여한 13개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참조: 집행책임자 및 대외협력 책임자

발신: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상황실장 박래군/최재훈

제목: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평가 및 이후 계획 논의

발신일: 2001년 1월 12일

총매수: 1매

1. 혹한 속의 12박 13일 투쟁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인권활동가들의 단식 농성이 준 영향을 평가하고, 이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신속히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1월 17일(수) 오전 10시에 인권운동사랑방 또는 국제민주연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당일날 오시면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1. 농성평가 및 재정보고/ 2. 3개 개혁입법 연대회의 연석회의 결과 공유/ 3. 이후 인권단체의 대응방안입니다.
3. 각 단체에서는 반드시 집행책임자를 참석시켜 주시고, 이번 농성에 대한 내부 평가를 갖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권 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연락 담당: 인권운동사랑방(741-5363)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발신: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제목: 지지·지원에 대한 감사

발신일: 2001년 1월 12일

총매수: 1매

1. 13개 인권단체로 결의된 12박 13일의(12월 28일~1월 9일) 노상 단식 투쟁을 귀 단체의 뜨거운 연대 속에 마무리하였습니다.
2. 동조단식, 지지방문, 성금과 물품, 의료지원, 연대의 노래, 촬영 및 삽화 등으로 귀 단체와 회원 여러분은 진정한 연대의 정신과 실천을 저희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에 보여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3. 보내 주신 농성 물품 가운데 남은 의약품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침구류는 단식 농성중인 사업장의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침구류는 모두 세탁해 놓았으니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4.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 단식 농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3대 개혁 입법 쟁취 및 민중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계속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광고문안>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12박 13일의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투쟁의 약속으로 접습니다.

오고간 발길, 함께 밝힌 촛불, 연대의 노래, 물밀
듯 이어진 성명, 동조단식... 허기와 추위를 물리
친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진정한 인권 보장과 개혁을 향한 김대중 대통령
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우리의 당당한 의지
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들, 특히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지해주신 명동성당
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3대 개혁입법
쟁취! 인권활동가들의 기본적 임무로 알고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9일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드림

1100-417 최영리

55
김영자 변호

32001-0050687

111-0643
(주) X

55

우정영 / 3월

단식농성에 지지성명을 낸 단체

2월 29일 : 대만인권연맹(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2월 31일 :

1월 1일 :

2월 2일 : 한국여성민우회/아시아 인권위원회(AHRC)-홍콩

1월 3일 : 민주노총/한총련/(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월 4일 : 재캐나다 한국청년연합 · 재미한겨레동포연합 · 재미한국청년연합에서 인권활동가들에게 권대편지/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참여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한국청년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불교인권위원회/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월 5일 : 민족문제연구소/재미한겨레동포연합 · 재미한국청년연합-김대중 대통령에 항의편지 및 LA와 뉴욕 영사관 앞에서 연대시위/진보네트워크/충북연대/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여성전화연합/제주인권지기 등 제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문정현 신부의 격려 이메일

1월 6일 :

2월 7일 : 진관스님의 개인편지/

1월 8일 :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천주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4개 종교인들/(사)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2차성명/

12월 28일 : 11시-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결단식 및 기자회견/

12월 29일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김대중 정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냄-신임 남궁 석 정책위의장 권담 및 기자회견/단식농성단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농성,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민주당사에서 전경에게 붙들려 나옴/

2월 30일 : 단식농성단, 애초의 결의대로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기로 재확인/

12월 31일 : 성당, 신도가 몰린다며 낮 12시까지 농성장 비울 것 요구-농성장 절반으로 줄여 단식농성 지속/문만식 씨 탈진/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 농성장 왔다가 쫓겨남/저녁 9시-2000년 제야의 밤 촛불집회 및 촛불행진/

1월 1일 : 새벽 0시 30분-이승복 전 동대총학생회장 연행/시민단체 신년인사/

2월 3일 : 인권단체 대표자 · 집행책임자 긴급 연석회의/박래군, 최재훈 씨 문화방송 시선집중 팀 생방송 인터뷰/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농성장에 왔다가 쫓겨남

1월 4일 : 인권단체 대표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권 민주당 대표앞으로 '긴급 면담 요청'/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탈진해 귀가/참여연대, 릴레이로 단식농성에 참가 결정/이천재 ·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단식농성 참가/구선주 추모연대회의 간사 단식농성 참가/

2월 5일 : 인권단체 대표자, 민주당 김종권 대표 '바쁘다'며 만남 회피, 인권단체 대표자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발송/이창조-한겨레 특별기고/박래군 상황실장 탈진-사당의원 후송/진보넷, 민언련 활동가들, 직접 농성에 참가하는 못하지만 농성지지하는 의미에서 한끼, 릴레이 단식

2월 6일 : 최대의 단식인권-45명, 장기수 13명, 고대생 10명 등/촛불음악회-

1월 7일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서울역 집회/오영자 유가협 회원 탈진 백병원에 후송, 밤 11시



다시 농성장에 돌아옴/새벽부터 내린 30년만의 폭설로 단식단 최대의 위기-그러나 비닐을 뒤집어 쓰고 우산을 쓰는 등 결연한 들머리계단 연좌농성/

1월 8일 : 김종권 대표 면담을 책임지고 주선하겠다는 이종걸 위원장 제주도에 있었음/인권단체 사무국장단 회의/

12. 28 :

2. 29 : 부산인권센터 이광영 씨 동조단식결합/이덕우 변호사/전교조 조합원/촛불집회-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천정연, 경기남부연합,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학철 과장 등, 광노현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상집위원장,

2. 30 : 촛불집회-김해원 한국엠네스티 회원, 홍순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준비위 부위원장, 김형수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교육국장, 박한근 새사회연대 간사 단식농성 참가의사 밝혀/저녁에 비가 내림/

12. 31 : 송구영신문화제 500여 명 참가/박정기 유가협 회장 등/송구영신문화제에 앞서 범민련에서 저녁 8시 문화제를 열/저녁 9시 송구영신 문화제-사회 우회영/진재영, 이창주, 김철준, 권영길, 장기수 선생, 사회진보연대 등(속보 편집자도 이틀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왔다)

1. 1 : 각계각층 신년인사 50여명 참가/내리는 눈을 피하기 위해 텐트를 칩/권오현, 홍근수, 윤기원, 노수희, 장기수 김영승 선생 등/

1. 2 : 송원찬, 최재훈 씨 탈수증세를 보여 텐트에 누워 휴식/삼성해복투 회원 50여 명이 지지방문해 독자집회/민주노동당 김광수 당원등 3명/진관스님/가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책임자 10여명(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YMCA 등)/국보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부패방지법 입법시민연대 관계자//최종수 신부/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장/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천영세 사무총장 등 10여 명/민주노동대 외협력실/강승규 민주노동위원장 후보 운동원/2001년 서울교대 신입 총학생회장/21세기 진보학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3명/국제민주연대 변연식 공동대표/푸른영상 김동원 감독/서준식 대표의 두 딸 혜수와 혜승/이덕우 변호사/문정현 신부님의 독무대. '직녀에게', '일본 놈이 물러가서 좋아했더니...',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등 주옥같은 노래/경기동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회원/

1. 3 : 촛불집회-김희경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 6명/이혜숙 전국군포력회생자유가족협회 회장 등 10여 명/한홍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 집행위원/소설가 방현석 씨/송두환 민변회장/김도형 변호사/홍제동 새민족교회 관계자/황철민 세종대 교수/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애국사랑청년회원/광운대 학생 10명/문화방송 시진집중 팀/문정현 신부/최종수 신부/이메일 혹은 인권단체 게시판에 한끼 동조단식 결의 밝히는 사람들 나타남/국제민주연대 월간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위원 일동/

1. 4 : 정광훈 전농 회장/최갑수 민교협 의장/ 오세철 노동자의 힘 대표/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등 민중대회위원회 10여 명//정치수배자 가족/ 민혁당 가족대책위/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최종수 신부/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1. 5 : 노수희 공동의장/성유보 이사장/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참여연대

2

의 김태식, 안진걸 씨/진보넷 관계자/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올바른국가인권기구설립
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창수 씨/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박세길 사무총장/

1. 6 :

1. 7 :

.. 8 :

촛불집회 참가자

12.29-50

2.30-50

12.31-500

일별 단식농성 참가자

2. 28 - 13명

12. 29 -

775-6267
777-0643

3

관석농성예 참가한 단체

울산인권운동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유가협/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개인(이덕우)/ 자통협/ 우리만
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대생-정영석/ 고려대생 10명/ 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장기수 /부산인권센터/푸른영상/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자통협/ 시민-김종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유가협, 유가협 수도권지회/

고대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10명/ 구선주/ 김동원/김석한/김영승 선생님등 장기수 13명/김영옥/
김은영/김종일/김중현/김지선/김창원/김창원/김태식/김판태 /김형수/
남상덕/노수희
문만식/문필자
박근용/박래군/박석분/박석운/박성희/박영철/박철우/박한근/백종수/
서준식/성유보/송원찬/송주현/신수경/심태섭/안원영/안진걸/양영미/오두희/오영경/오영자/유해정
이광영/이광영/이덕우/이동수/이승희/이주연/이창조/이천재/임태훈/
장남수/정영석/정은성/조영민/
차병직/채은아/최영희/최인화/최재훈/한재각/한희숙

5

긴급 면담 요청서

연락처: 남규선 민가협 총무(017-238-3300/763-2606)

수신: 새천년 민주당 대표 김중권

발신: 제 인권단체 대표자

노동인권회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 위한 인권운동센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제목: 인권활동가연합 흑한기 노상단식농성과 관련된 <긴급> 면담 요청

총 매수: 1매

발신일: 2001년 1월 3일

1. 200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민의 개혁 염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2. 본 단체의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부패방지법 제정'을 내걸고 1월 3일 현재 일주일째 흑한기 노상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농성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13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제 누가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대 개혁입법이 실종된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이렇듯 자신의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신년사에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왜 그 기쁨을 함께 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 노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진지하게 청취해야 합니다.

4. 이에 저희 13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긴급 면담을 귀 당의 대표님께 요청합니다. 저희는 오는 1월 5일(금) 오전 9시 귀 당사를 방문할 것입니다. 저희 요청에 대한 답변을 4일(목)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끝.

래군, 원찬, 만식이형에게

계속 눈물이 나요.

농성 정리를 하루 앞둔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사춘기 소녀처럼 자꾸만 흘러요.

혹시 아세요?

지난해 28일, 연말 연시 모두들 쉬는데 투쟁이 가능하겠냐며

주위의 많은 분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저 역시 속으론 힘들거라며 고개를 저었던 걸.

그래도 단식농성단에 합류했던 건, 동생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하고 경찰에 끌려가야했던

한 학생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대론 한해를 접을 수 없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삼엄한 경찰의 경계를 뚫고 명동성당에 들어 온 후

"농성은 안된다"는 명동성당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천막도 치지 못하고 이곳 들머리에서 침낭 하나와 비닐을 덮고 잠을 청해야했던 밤들.

추위에 열두번도 넘게 깨 얼어붙은 손발을 비비면서

사람의 체온이 정말로 따스하다는 걸 비로서 알았어요.

그래도, 노상은 너무 추웠어요.

금새 성애와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입김이 싫어 숨쉬는 것조차 즐기고 싶었으니까.

기억나요. 31일 추위와 흑한 속에 만식이형이 쓰러져 앰블런스에 실려갔던 거.

게다가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카톨릭회관 처마밑에서 조차 쫓겨나

비닐을 덮고 노상에서 잠을 청해야했던 서러웠던 밤도.

새해 첫날이라 모두가 들뜬 밤에 우린 노상에서 비닐을 덮고 자다 눈에 질식사할 뻔도했죠.

그 일로 성당측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긴했는데 다음날 송원찬 사무국장님과 재훈이형마저 쓰러져 버리고... 온통 나쁜 일 뿐이었어요.

정치권은 의원 뛰주기란 회대의 만행으로 정쟁을 벌여 개혁법안엔 관심도 없고,

단체들과 시민들은 연말연시에 묻혀 우릴 기억하지 못하고...

뼈를 에는 강추위와 20년만에 찾아온 폭설까지. 너무 외롭고 추운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혼자가 아니었나봐요.

어느샌가 싶더니 많아진 발걸음들

14명으로 시작했던 초라한 단식농성장은 어느새 20이 50이 3백이 됐고

쓰러져간 형들의 자리엔 "그동안 투쟁을 방기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
죠.

신문에서 보았다며 챙겨온 모포를 내주던 택시운전사와
빈 지갑을 미안해하며 은행으로 달려가셨던 아주머니.

따슨 방이 불편하다며 폭설 속에서도 함께 어깨를 걸어주셨던 장기수 어르신들.
이름도 모를 이들의 모습은 살아가는 동안 쉽게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소금세례를 받고 쫓겨난 몇몇 정치인들의 모습도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던 지난 12일의 단식투쟁은 정말 고되고 힘겨웠습니
다.

절반가량의 농성자들이 실려나가고 나머지는 링겔에 의지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하지만 힘겨운 농성 속에서 우린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를 위한
한 개의 성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성의 마무리에 선 지금, 전 너무 겁이 납니다.

혹여 우리의 농성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외쳤던 "국보법 폐지, 인권위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묻히고
처절하고 애처러웠던 투쟁이 끝났음에 안도하며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까봐,
2월을 넘겨서는 안될 이 문제들이 사그라져버리거나
또 누군가 꺼져가는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기위해 힘겹게 타올랄까봐
전 이 농성을 부여잡고 가고 풀 만큼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뚱아리를 내던져 만든 우리의 성냥이,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희망의 촛불에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썩어빠진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허울좋은 인권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불꽃을 일으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갈길이 아직 멀듯 힘겨운 몸 다시 추스려,
투쟁의 전선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식농성 12일째날에 농성단원 해정이가....

156

추운 겨울날
(인권활동가들을 위하여)

진관

추운 겨울날 이었다 산 토기도 울고 있는 눈보라치는 겨울밤이었다
 인권대통령을 그리워하며 인권활동가들은 명등들머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은 인권세상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다.
 벌리에서 중국집 짜장면냄새가 나는데
 나는 닭다리 족발이야기를 하고
 조국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분단의 땅에서
 죽음으로 간 동지들을 생각하며 단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낙동강에서 지리산에서 죽어 간
 동지들은 생각하며 단식하고 있는 장기수어른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 있다.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라 독재를 말하는 법이다
 분단 55년간이나 조국을 죽인 법이다
 어떤 이들은 감옥창살을 부여잡고
 어떤 이들은 죽어 가면서도 잊지 않고 부른 조국이름
 백두산 전지에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 송이 꽃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듣는 희망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기 위하여 단식을 결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찬란히 빛날되어 우리의 이마에 빛나리
 나는 어이하야 그러한 응기가 나지 않는가
 무엇이나를 단식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으로 죽어 간 민주인사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맹서를 하고 결사를 한다면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우리들뿐 생각한다면
 그러나 나는 병든 몸이라고 발길을 뒤흔 리었다.
 정말로 부끄럽게 부끄럽게도 발길을 옮기었다

Dear Angelica,

Happy new year. Thanks for your letter and the greetings. I will try to include something in the next newsletter. I am attaching herewith the copy of the urgent appeal sent about a ten days ago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your information.

Thanks. Philip Setunga

160

URGENT ACTION URGENT ACTION URGENT ACTION URGENT ACTION URGENT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 URGENT APPEALS PROGRAM
AHRC UA Index: 001221 21 December 2000

UA 43/00: ~~It's~~ time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SOUTH KOREA - Hunger Strike to Abolish the NSL

Fifty-two years is more than enough. It's time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More than 20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ts in South Korea went on a hunger strike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at Myungdong Catholic Church in Seoul on Dec. 18.

They are insisting tha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bolish the NSL, none of the political parties have any intention of passing this bill. The hunger strikers are urging that President Kim Dae-jung must make a political decision to abolish the NSL by the end of this year.

Indeed, from the time when President Kim received the 2000 Nobel Peace Prize on Dec. 10 in Oslo, Norway, there have been many protests involving a large number of lawyers, professo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o abolish the NSL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hunger strikers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e urge you to take prompt action on this issue in order to create international pressure to abolish the NSL in South Korea.

BACKGROUND

The NSL in South Korea has cast a dark shadow of oppression on countless people since its enactment in 1948. From the beginning, the NSL has played a critical and inhuman role in the maintenance of dictatorial regimes in South Korea by casting a pervasive net of fear and oppression, especially during the military regim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when more than 10,000 people were tried and given jail terms for violating the NSL. Over

the years, it has been used to arrest thousands of innocent people unfairly and unjustly.

The NSL is widely criticized for its arbitrary components. For example, when it is broadly applied, Article 7 of the NSL can be used to suppress

virtually any activities of South Korea^원 citizens. Mere possession of a book or viewing a film can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Article 7 of the NSL. This surreal application of the law has occurred many times.

Curr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nder heavy pressure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repeal Article 7 of the NSL, which states:

?1) Any person who has benefited the anti-state organization by way of raising, encouraging or siding with or through other mean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its member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z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

?5) Any person who ha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ions as stipulated in paragraphs 1 through 4 of this article,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possessed,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or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each paragraph.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despite the much talked about reforms and the government^원 claim of a clean human rights record, the NSL continues its fearful presence by limiting and violating the very basic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According to a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AI), 99 prisoners of conscience are still in jail; most of them are trade unionists and student activists for violation of the NSL.

SUGGESTED ACTION

Please write two letters. Please send the first protest letter, fax or e-mail to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second as an e-mail to two party representatives in South Korea. The addresses and suggested points to be raised in these letters are given below.

1. Mr. Kim Dae-jung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The Chungwoadae

1 Sejong-ro, Chonro-gu

Seoul, 110-050

REPUBLIC OF KOREA

FAX: +822 770-0253

E-MAIL: webmaster@cwd.go.kr

SALUTATION: Your Excellency

Send copies to:

Mr. Kim Jeong-kil

Ministry of Justice

1 Jungang-dong, Kwachon-si

Gyeonggi Province, 427-760

REPUBLIC OF KOREA

FAX: +822 504-3337

E-MAIL: jk.kim@moj.go.kr

SALUTATION: Dear

CONTENTS:

?Strongly express your great concern and disappointment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NSL even though President Kim Dae-jung has been known as a champion of human rights causes and repeatedly has mentioned that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South Korea is his utmost priority. In addition, during his regime for the l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no changes made to the NSL.

?Urge him to immediately make a political decision to abolish the NSL.

?State that, without abolishing the infamous NSL in South Korea, the basic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cannot improve significantly.

?Stat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watch his action or inaction as a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for 2000 to deal with this issue.

2. Mr. Kim Jung-kwon

Representative of the New Millennium Democratic Party

Kisan Building, 15 Yoido-dong, Youngdeungpo-gu

Seoul, 150-010

REPUBLIC OF KOREA

E-MAIL: webmaster@minjoo.or.kr

SALUTATION: Dear

Mr. Lee Hoi-chang

President of the Grand National Party

17-7 Yoido-dong, Youngdeungpo-gu

Seoul, 150-010

REPUBLIC OF KOREA

E-MAIL: webmaster@hannara.or.kr

SALUTATION: Dear

CONTENTS:

?Request that they hold a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bolish the

NSL as soon as possible.

Urge them to accept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s view and take meaningful steps toward dismantling the NSL.

Please send a copy of your letter to AHRC Urgent Appeals

Email: ua@ahrchk.org

Fax : +852 2698 6367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EL: 886-2-23639787

FAX: 886-2-23636102

EMAIL:

URL:

December 29, 2000

President Kim Dae-jung,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to you. During the ceremony you proclaimed that, "I shall give the rest of my life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my country and in the world." It was a very touching message.

It encourages us to write in order to bring to your attention the hunger strike at Myung-Dong Cathedral, which started on December 18, 2000. This indicates that Korean people are waiting for the peace that you promise to give. The hunger strikers would like to request you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that cause suffering and breach the peaceful life for many innocent Koreans, and to establis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order to fulfil your promise for human rights.

The people of Korea will be able to fully contribute to your plan for peace, human rights,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for Korea if you would grant them with the above. We hope that you will prove to the world your promise for peace for the world by starting first with your own people.

Sincerely,

Ku Yu-Jane

Secretary-General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17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3-12 삼공빌딩 3층 전화: 3142-0700 전송: 3142-1800 <http://www.ccdm.or.kr> 천리안·하이텔 CCDM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NGO 담당자 및 시민사회단체
- ◇ 발신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 성유보)
- ◇ 내용 : 인권활동가 명동성당 노상 단식지지 및 보도 촉구 2차 성명서
- ◇ 전송일자 : 2001. 1. 8. (월)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이 오늘로 열 이틀째 접어들고 있다. 단식이 계속되면서 농성단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단식 4일째인 12월 31일 전북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문만식씨가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1월 5일에는 박래군 상황실장이, 1월 7일에는 60이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단식에 동참했던 유가협 오영자 회원이 탈진하여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유혜정, 최재훈씨는 탈진해 링거액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돈 공방'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 이들 범안에 대한 당론조차 성하지 못한 상태다. 언론은 단식 농성단의 소식은 외면한 채 정치권의 공방을 부추기기도 하듯 연일 신문지면과 방송뉴스시간을 정치권 다툼에 할애하고 있다. 한겨레, 노동일보,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 그리고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동아일보의 짝막한 보도말고는 대부분의 언론이 단식 농성단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해 말 명동성당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농성과 집회를 금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언론은 이 소식 다루기에 호들갑을 떨었다. 그 동안의 농성과 집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던 것처럼 보도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이며 무엇을 위한 언론인가? 그리고 임중히 요구한다. 언론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과 이를 외면하는 야당 그리고 소아병적 이해타산으로 인권위위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눈을 돌려라. 그 행태를 비판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인권활동가들의 목숨 건 단식농성을 보도하라. 언론은 이번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3대 개혁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 및 제정되어야 합니다.

엄동한파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는 어둡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니, 바로 이 동토의 한복판에 이 나라를 너무나 오랫동안 휘감고 있는 괴물스러운 악법을 고치코자 온몸을 던져 목숨 걸고 단식에 돌입한 인권활동가들의 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체감온도 20도를 넘는 한겨울 맨땅에서, 칼바람을 막을 벽도 없는 한테에서 단식을 하다가 하나 들쭉 쓰러져 병원에 실려져 나가고 있다는, 차마 제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소식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 건국 이후 최초의 설득력을 수반한 정권교체라고 우리 모두 중심으로 동의하고, 환영한 것은 그분 한 사람의 정치사상이나 경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개혁과 민주주의 신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이라는 형태로 세계가 우리 민족에게 표한 인사를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에 치러야 했던 엄청난 희생에 대한 작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수상소감에서 '민주와 인권'을 거듭 강조했고, 또한 그 상이 일개인의 상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받은 상이라는 것 또한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명예로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인권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이웃들이 동토의 얼음짙 같은 시멘트 바닥에 앉아 신음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뽑아놓은 신임 여당 대표는 인권활동가들이 왜 이곳에 앉아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갔는지 설명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단지 '바쁘다'는 핑계로 묵살했습니다.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단식이라는 극한의 방법으로, 민족 공동체 모두의 생존과 관련된 악법의 철폐를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일을 우선 말리고 그 일의 내용을 귀 담아 살피는 일보다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구실이 정치지도자의 변이라면, 그를 그토록 바쁘게 한 우리 시대의 다른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권활동가들이 이 겨울에 이토록 처절한 극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우리 성직자들은 이 민족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치지도자들보다 조금 더 현명하고, 그들보다 조금 더 용기가 있었고, 그들보다 조금 덜 탐욕적이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삶보다 더 크고, 자신의 삶보다 더 영속해야 할 민족의 앞날을 위해 살신투척의 자세로 온몸을 엄동한파에 내던지는 이 모습은 장엄하고, 처절해서 아름답고, 그 뜻이 높아서 귀하고 기록합니다. 이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몸을 움크리고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의 명예가 지켜지고, 또한 이 민족이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설혹 몸은 움크리고 있고 손발은 동상으로 얼었지만 여러분의 기개와 기상은 바닥에서 치솟는 한기로도 살을 에는 겨울 칼바람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 시리고 눈물 나는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호소합니다.

경제난과 정치협오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진저리치는 정쟁의 한복판에서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탐대실의 정권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단식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오매불망 추구하고 계시는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제정, 이 나라에 원칙과 정도(正道)가 서고, 의로움과 공정함이 흐르는 진정한 화합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민족에게 봉사할 마지막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8일

기독교(목사 26명) 가나다 순

김광수/김광준/김병균/김재열/김태현/나해석/노창식/문대골/박승렬/박진석/원형은/윤인종/이근복/이명남/이철우/이충재/임광빈/임흥기/장성용/정진우/조영식/진방주/최자용/허중현/황남덕/황필규

불교(스님 32명)

금강/도현/만성/법상/법안/법장/부경/성관/여연/원종/원타/원혜/유곡/일문/장적/종선/종호/지명/지선/진만/진명/진원/청화/토진/한우/혜용/혜조/혜조/홍승/화범/효림

원불교(교무 24명)

강형신/고주심/김성혜/김인창/남성균/사진원/서현조/손현오/송용원/양영인/오광선/오정행/이덕도/이정근/이정택/이혜화/이환욱/정상덕/조성천/최정종/한경천/한수덕/홍현두/황화경/

천주교(신부, 수녀 60명)

(신부)고원일/고정배/김병상/김봉술/김승오/김승훈/김영식/김인국/김진룡/김진화/김택암/김현영/김훈/나승구/남경철/남국현/남학현/리수현/문규현/문정현/박기호/박재식/박창균/박창일/방상복/백남해/서봉열/신성국/안승길/안충석/유영일/윤영남/윤희동/이강진/이상돈/이상원/이상현/이영우/전종훈/정진호/조성제/최승근/최종수/하유철/함세웅 신부의 참석자 일동

(수녀)김선주/김아네스/김옥순/김인아/김현옥/문경숙/박승애/서영희/양폴름바/양비안네/이전춘/이경미/이선우/전영심/조희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하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시편 2:10)

새 세기가 시작되고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은 아식 요원하기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외 5대 지표 중 완전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고 인권법과 관부패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재야의 종소리’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을 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남담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지금 병농성당 들머리에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10여일이 넘는 단식 끝에 쓰러지는 활동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인권,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에만 소일할 뿐 국민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지지하기 우리는 다시 한번 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대통령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응단을 내려야 한다.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하라.
-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제정하라.
-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개혁입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이번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신진이 없을 시 헌정부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심정적 지지마저도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00. 1. 8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보낸 사람: "방학진" <anti516@hanmail.net>
 받는 사람: <bum815@korea.com>; <openc@openc.simin.org>; <urimana@chollian.net>;
 <humanrights@sarangbang.or.kr>; <pubooks@kornet.net>; <web@jabo.co.kr>;
 <ktunion@hanmail.net>; <webmaster@chuksamo.org>; <hndemo@freechal.com>

보낸 날짜: 2001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5:00

제목: 지지성명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는 먼저 흑한 속에서 인권의 따스한 봄바람을 맞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는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에 뜨거운 찬사와 지지 그리고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끝내 인권을 권력의 도구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일시적 낯가림으로 이용한 현 정권에 대해 분노한다. 아울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짓밟아 온 반동의 역사를 안고 가려는 현 보수반동 정치세력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1세기는 인권의 세기이다. 인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이 상호존중의 기반 아래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근본 가치이다. 권력과 자본 등 힘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수탈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가장 인간적인 운동이 바로 인권 투쟁이다. 이미 세계는 인권의 세기로 거대한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생 대한민국은 일제에 협력해서 민족을 탄압하고 제국주의의 대외침략전쟁을 앞서서 찬양한 반민족적 집단인 친일파를 품에 안고 태어났다. 건전한 상식과 민주적 가치를 복돋아야 할 정부 자체가 근본적인 도덕적 결함을 안고 출범한 것이다. 그후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세력이 거대한 권력구조를 구축하면서, 이 땅은 이들의 추악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역대 정권은 분단 상황을 악용해 반공을 한 사회의 최고의 가치이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다.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절실한 몸부림조차 반공의 칼날 아래 피를 흘리며 무너져 갔다.

실로 대한민국에서 인권말살의 역사는 국가가 주도한 국가테러리즘의 역사였다. 그리고 반공은 이 국가테러리즘을 언제나 정당화한 악의 논리였으며, 국가보안법은 그 공포의 율법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우리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군부파시즘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악법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권력의 독수로서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50년 가까운 국가테러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권 사각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일제 파시즘의 잔재이자 인간의 권리를 억죄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소불위의 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반공을 빙자한 인권 말살의 배후에는 소수 권력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무한 욕망이 숨어 있다. 부도덕한 권력은 자본과 유착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정부패의 거대한 사슬을 만들어 놓았다. 이 부정부패의 사슬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권력과 재벌만을 공룡처럼 살찌웠다. 이미 우리 사회는 힘있는 자와 돈 있는 자가 약한 이를 대상으로 무한 포식을 취하는 육식공룡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지 않으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과 갈등은 커질 것이며 끝내는 한 사회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은 국민의 혈세로 부정부패와 국가테러리즘의 주범이자 민족반역자인 박정희를 기념하는 총체적 반동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무한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실제적 활동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 등 개혁 입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겨울은 더욱 추워지고 있다. 참담한 겨울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의 삶에서,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서민들의 한숨 속에서, 인간적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다 옥중에 갇혀 오늘도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인권투사들로부터, 그리고 단식을 불사하며 개혁입법을 쟁취하려는 인권활동가들과 그 연대 동지들의 불타는 눈빛 속에서 우리는 인권 쟁취의 그날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1월 5일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 인터넷, Daum
평생 쓰는 무료 E-mail 주소 한메일넷
지구촌 한글 검색서비스 Daum FIREBALL
<http://www.daum.net>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228호

2001년 1월 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김영옥

· 주소) [560-040]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3-231-9331 · 팩스) 063-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우.진보넷) · E-mail: onespark@chollian.net · Homepage: http://www.onespark.or.kr

꺼져가는 인권관련 법안 불씨 살려내

인권활동가 50여명 13일간 노상 단식투쟁 벌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8일 현재 12일째 속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문제가 계속되는 국회개혁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사그라들던 인권관련 법안에 대한 움직임들이 각계의 관심을 끌어내며 그 불씨가 다시 잘 아나고 있다.

8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당의 종교인 250여명은 명동성당에 모여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종교인 기원대회'를 열었다. 기원대회에서 문규현 신부는 "지난 3년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정쟁속에 묻혀 자동폐기의 위기에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실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부는 이어 "종교인들도 인권활동가들의 처절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활동가들은 오는 9일로 13일간의 힘겨운 단식농성을 마친다. 13일 동안 계속 현상을 지켰던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씨는 이번 농성이 "투쟁의 불씨를 살려냈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치권이 아직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보이기만 한다면 곧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농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겨울에 난로하나

피우지 않고 힘겨운 노상단식농성을 강행한 이번 농성에 대해 이씨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투쟁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워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봄과 밤 다 비우고 이 한 봄 던지겠다는 자세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결연하게 하나같이 록 성과는 있다"는 것이다. 운동은 투쟁을 통해서만이 정당성을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의 결실로 오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부패방지법 입법 시민연대 등 3개 연대기구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3대 개혁입법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봄이 오기 전에 3대 개혁입법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흠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아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 폐지와 인권기구 설립, 이번이 아니면 물건너 갈 것

전국의 인권활동가 16명은 지난해 12월 2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안전 사제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이번 회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이 사안은 물건너 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명동성당 측이 지나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파업이후 농성을 허락하지 않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도 명동성당 들머리에 침낭과 비닐을 덮고 잠을 자며 노상 단식농성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만식씨와 다산인권센터 송영찬씨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씨 등 3명이 혈압과 심장에 이상을 보이며 차례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단식농성 참여자 날로 늘어

연말연초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투쟁소식을 들은 각계 각층에서 하나둘씩 지지방문과 동조단식이 늘어나 8일 현재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루 동조단식자까지 포함해 70여명에 이른다. 특히 유가족협의회 오영자 회원(60·박선영 열사 어머니)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여기서 죽겠다"며 링겐을 꽂고 단식농성을 지속해 보는 이를 숙연하게 했다.

국내 사회단체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성명도 줄을 이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지난 2일 "이들 법안의 실행을 위해 국제 캠페인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미한국청년연합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 회원들은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한국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9일로 13일간의 고단한 단식농성을 마치는 인권활동가들은 농성이후 3대 개혁입법을 위해 각계와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후원계좌 안내

○ 예금주 문규현 ○

- 국민은행 512-21-0065-982
- 우체국 402297-0062450
- 전북은행 535-21-0304454

661일 간의 투쟁, 희망이 있어 끝장을 낸다!

개정병원 노동자 길 위의 2년

2001년 1월 5일, 병원성상회투쟁 661일째, 군산시청 앞 천막 농성 366일째, 햇수로 3년째, 개정병원 노동자들이 쉼이 없고 있는 투쟁기록이다.

현재 노동조합은 검은해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 3명과 46명의 복직된 노동자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이들의 하루일과는 군산법원 앞에서 시작하여 군산법원 앞에서 마무리된다. 이상용 이사장이 지난 12월 21일 금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금보석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개정병원 신대욱 사무장은 "이씨의 새로운 변호사 이관용씨는 전직 판사로 지난해 8월에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이 사실로 미루어 "이상용에 대한 금보석 판결은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1월 11일 군산법원 김영학 판사는 '이상용 이사장을 죄질이 나쁘다'며 11월 11일 구속을 시켰었다. 그러나 구속 전과 상황이 변한 것이 없었고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불과 40여일만에 이씨를 금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체불임금 해결돼도 이상용 풀러날 때까지 농성하겠다"

1월 5일, 농성장에서 고은산 조합원이 사측의 고소로 출석 명령서를 받았다. 노조에서 확인해 본 바, 김진 노무관리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군산지법 앞 항의 시위 도중 폭행 전으로 15인의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오히려 사측이 카메라 촬영과 녹음기로 시위중인 조합원들을 협박하다 뽀빠움을 일으키고 신대욱 사무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전치 2주 등 폭행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이 조합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신사무장은 "지난 12월 21일 이씨의 금보석 결정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신사무장은 "사측의 이같은 이중 삼중의 폭력은 병원 정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며 격분했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조합원 고성규(51, 방사선과)씨는 "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천막농성 1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만약 전원 복직되고 체불임금이 지급된다면 농성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씨는 "이상용이 퇴진하고 이사장이 해제된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

오랜 투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건강이 악화된 조합원이 많은데다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인해 의료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분만실에서 근무했던 조현숙씨는 "계속되는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피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많고 감기에도 3-4주씩 앓기도 한다"며 오랜 투쟁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조씨는 이어 "투쟁을 통해 '동지'와 '노동'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개정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측에 의한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기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힘겹고 지난한 이 투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만화영화권 최인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②

1년에 한번씩 치러졌던 인권영화제
이제 매달 1편씩 여러분 곁을 찾아가합니다.

상영작 : <대지의소금> ※ 무료상영

허버트 비버만 감독/ 94분/ 드라마

일 시 : 2001.1.20(토) 오후 9시

장 소 : 은고불영화회 (충남동 본행나무골목 등학력명기념관)

문의 : 063 231 9331 <http://imp.or.kr/~chrff>

(기고) 생명의 힘으로 개발에 맞서

새만금사업 즉각 종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공동대표 신형록

눈 내리는 바다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흰 눈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눈 맞으며 걷는 백사장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안엔 삼면이 바다고 눈까지 많아 겨울바다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고 뛰어들던 2000년은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과 수많은 이야기를 한 해였습니다.

빠르게만 살고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자연을 걷다보면 생명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칠마다 표정을 보여주고 풍부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시간에 쫓기고 자연에서 떨어진 삶을 사는 인류문명은 자연과 이야기하고 생명과 호흡하는 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일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가치를 깨닫고 인류가 살아야 할 삶의 지향을 말하는 일입니다.

삶과 생명의 가치

첫 눈이 내리는 날 갯벌에 서있는 장승이 보고 싶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별 운명에 처해 있는 해창갯벌에 서있는 장승이 첫 겨울을 맞아 눈을 맞고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을 우둔한 인간들로부터 지키자고 마을 어귀에서 바닷가로 나와 소복히 내리는 첫 눈을 맞고 있는 장승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갯벌에 서서 태풍이 불면 온몸으로 맞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면 살갓을 태우면서 바다와 갯벌을 지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 눈을 맞는 장승 모습은 자연과 하나인 모습이 아름다우며, 바다와 갯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승이 바다로 갈 때는 봄이었습니다. 개나리가 물방울을 터뜨리는 계절에

바다와 갯벌을 폐위 몇 사람 이익 챙기는 우둔한 사람들을 질타하고자 바다로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간척사업이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고 간척사업이 국가를 위하고 전북발전을 위한다고 합니다.

나눠먹기 정치논리로 예산책정

나라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반수 넘게 새만금 간척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 일을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도 지역 이기주의와 나눠먹기 정치논리에 밀려 2001년 새만금사업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시작 때는 전북이 금새 발전하고 지역주민들도 삶의 질이 높아져 살기 좋은 부안이 된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전북이 희생해야 하고, 어민들의 삶을 죽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예산을 보류하자 국회의원들 건의문도 지역주의와 나눠먹기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민대표로 말하는 국회의원의 건의문도 물거품이 되는 현실을 지역주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와 정치인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발전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어민을 비롯한 주민들은 죽든 말든, 무모한 개발사업으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포관리가 더 중요한 정부와 정치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이 복합산업단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전북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12월 국회에서 새만금예산이 심의될 때 도민들에게 선전하던 복합산업단

지를 포기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농경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든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업이기에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전북에 도움되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을 죽이는 일이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치영향력을 넓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만금 예산이 삭감되면 도의원을 사퇴하겠다고 시명해 전국에 알린 도의원들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한 명도 사퇴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정치영향력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시슴없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모두 그만두게 해야합니다.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인 사퇴해야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금도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발에 맞서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2001년에도 여전히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만금 갯벌 살리는 일과 거짓을 일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그만두게 하는 일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화, 팩스, 메일을 보내주시시오!

청와대
전화 02-770-0027/ 팩스 02-770-0202
홈페이지 www.cwd.go.kr '열린 청와대'
이메일 webmaster@cwd.go.kr

한나라당
전화 02-3786-3101-5/ 팩스 02-3786-3110
홈페이지 www.hannara.or.kr 'e-게사관'
이메일 webmaster@hannara.or.kr

새천년민주당
전화 02-784-2855/ 팩스 02-761-0550
홈페이지 www.minjoo.or.kr '자유게사관'
이메일 webmaster@minjoo.or.kr

자민련
전화 02-701-7871/ 팩스 02-701-7874
홈페이지 www.jamin.or.kr '자유게사관'
이메일 jamin@jamin.or.kr

**인권
주평**

인권운동가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운동팀장)

새해를 맞았다. 저 마나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주변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탄식소리가 들려온다. 시장논리에 의한 부패비리의 구조조정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부패관료들만을 살찌우게 하고, 노동자들을 단지 일하는 기계나 값싼 노동력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제제일주의의 광포한 폭력이 노동자와 농민, 도시민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김대중정부 집권 초기의 그 많은 개혁 약속들은 어디 가고 아직까지 수구보수세력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개혁의 고삐를 멈추지 않겠다고 양무세처럼 헛된 소리만을 낭발하고 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조왕건처럼 비극을 자처하며 관습법 운운하며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통치자처럼, 김대중대통령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최후통첩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를 사처한 김대중정부는 민주, 인권규기의 구현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등 3대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차기집권에 눈먼 정치모라배들은 지난 1년 내내 신중당의 정치권 싸움질만 하면서 급기야는 국회의원 임대사적인 회대의 정치쇼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교착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가장 대표적인 개혁입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당론도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동 폐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전국의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12월

을 맞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정치권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풍난한 마음에서 연발연시 노상단식농성을 결행하기로 하였다. 긴 세월동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무쟁해온 인권활동가들이 추악한 독재자의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명동성당 축이 한통파업 이후 시설물보호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농성 시작일인 12월 28일 오전에 전경들과 한차례의 툼싸움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명동성당 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미안해하지 말고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2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기회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정치권만을 비난하면서 기다릴 수야 없지 않는다.**

머리 계단에다 스티로폼을 깔고 차가운 칼바람 속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밤에는 비닐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1월과 2월을 넘기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개혁입법을 놓고 각자 따로 따로 싸워 왔는데, 이를 한데 묶어 2월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식농성 계기로 2월 총력투쟁을

농성을 시작하자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찾아왔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방문자들은 하나같이 "참담한 심정이다", "함께 참여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로 농성단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다. "따뜻한 방안에 있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루밤이라도 같이 있어야겠

다며 광주에서 오신 60이 넘는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 오영자님은 아예 단식농성단에 합류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알았다며 농성에 합류한 양심수후원회 회원인 아주머니도 있었다. 자거운 바닷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단식농성단이 채워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분들은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는 천년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혹한의 계절에 투쟁의 불씨를 살려내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어 내었다"고 말한다. 너무나 과분한 찬사다. 이번 투쟁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인권운동가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미안해하지 말고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2월에 총력투쟁을 전개하자고. 기회는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정치권만을 비난하면서 기다릴 수야 없지 않는다.

나는 이번 혹한의 노상단식을 통해 대부분의 시간을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본능적인 생각만을 해왔다. 아무리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인간 한계의 극한 상황에선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해 졌고, 그 단순함으로 인해 오히려 편안하고 명료해 졌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은 바로 이런 단순함과 솔직함,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리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해, 우리 모두가 이런 원칙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어떨까!